

#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업 대도시 중 최고 과밀

### 도소매업 과당경쟁...소득 4곳 중 3곳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아 음식숙박업 60%가 최저생계비 ↓...폐업 유도 정책 펴야

전국 8대 대도시 가운데 광주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과밀화 수준이 가장 높음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경쟁에 따른 후유증인 셈이다. 중소기업연구원 9일 내놓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90% 이상 시·군·구에서 이들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아 과밀화 상태였다.

소상공인 업체의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경우 과밀 상태로 규정한다. 이들 업종 중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적은 업체는 전체의 75.6%에 달했다. 광주는 이보다 높은 77.5%로, 서울을 비롯한 8대 대도시 중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다. 심지어 2곳 중 1곳(51%)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과밀정도가 심각했다. 전남은 80.7%를 기록, 강원(81.1%)·전북(80.9%)에 과밀화 수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과밀화 원인은 산업기반 취약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과 신산업 미흡에 의한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으로 꾸준히 진출하게 됨으로써 과밀화가 됐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광주·전남지역 업체는 각각 71.5%, 71.7%였다. 도소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밀화 정도가 덜했지만, 영세성은 더 심했다. 광주·전남지역 숙박음식업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760만 원 선이었고, 이들 업체 60% 이상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화는 필연적으로 과당경쟁을 불러 소득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1kg당 소상공인 수를 나타내는 소

상공인 밀집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2000년 138.9명에서 2005년 149.9명, 2010년 164.1명, 2015년 181.3명으로 15년 사이에 42.3명이나 증가했다. 비슷한 밀집도를 보였던 대전은 같은 기간 130.6명에서 166.1명으로 35.5명 늘었으며, 인천은 22.8명, 대구는 21.1명, 부산은 9.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과밀 해소를 위해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산업 기반 육성으로 이들 업종 소상공인들의 퇴로 유도"와 다른 직업으로 창업 등 지자체별 폐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1년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전, 미안마 해안지역 맹그로브 숲 조성

### 온실가스 감축·탄소배출권 확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미안마 해안가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친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안마 양곤에서 국제환경단체인 WIF, 컨설팅전문기업 에코아이와 '미안마 맹그로브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WIF가 미안마 해안지역에 50ha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CDM 사업이다. 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안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20년간 총 17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림사업에 필요한 맹그로브 씨앗 채취, 양묘, 식재 등의 작업은 지역주민을 직접 고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탄소배출권 수익을 지역사회의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또 2차(2000ha)와 3차(3만5000ha) 맹그로브 조림 확장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는 탄소배출권을 한전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미안마 산림청과 합의했다. 한전은 올해 안으로 유엔에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초까지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이 최초로 해외 조림 분야에서 시행하는 CDM 사업이 될 것"이라며 "대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맹그로브 조림사업 시장을 선점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월하면 올해 6월 현재 월 소득 500만원의 직장인은 지금까지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월 1만6200원(43만7400원-42만1200원) 오르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25명은 지난 5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을 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문화체험 멘토링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5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25여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봉사활동은 야외 체험 및 문화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재능발굴과 사회적 성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문

강사와 연계해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천연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과 어린이들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늘어나는 해충에 대비해 피부가 예민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성분을 이용한 모기

퇴치제를 함께 만들고, 체험활동 후에는 저녁식사로 함께하며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임숙경 광주은행 사회공헌실장은 "지역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프로그램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빛그린산단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40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인철)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40필지(5만7000㎡)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빛그린국가산단은 광주시 최대 역점사업이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도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생산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완성차공장은 부지 60만㎡에 5754억원이 투입돼 2021년 11월부터 1000cc 미만 경형 차량을 생산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23필지, 지원시설용지 12필지, 주차

장용지 5필지로 완성차공장 예정 부지 인근 합평1구역과 광주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급을 원하면 오는 17~18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신청하면 된다. 문의, LH 광주전남본부 판매부 ☎ 062-360-3177, 317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중기 10곳 중 6곳 "남북경협 관심 높다"

### 중기중앙회 535곳 인식조사 "시장개척·내수부진 돌파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56.6%가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67.6%는 실제로 남북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는 이유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59.1%) ▲인건비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의 돌파구(17.2%) ▲지속되는 남북 평화무드(10.6%)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33.1%) ▲북한 내수시장 진출(18.9%) ▲중소기업 북한 진출(18.5%) ▲중소기업 북한인력 활용(11.2%) 등을 들었다. 북한 진출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개성이 42.6%로 가장 많았고, 평양 31%, 신의주 9.9%, 금강산·월산 7.3% 등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개성(39.6%)과 평양(36%)을 꼽았다. 남북경협에 참가할 경우 북한 진출 형태로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진출(64%)을 선호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으로는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 규정 마련(33.3%) ▲북측의 남북경협 합의이행 방안 마련(20%)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18.5%) ▲북한 내수시장 진출(15%)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12.7%) 등을 들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시장과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 참가에 관심이 높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꾸준한 상호신뢰 회복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862회)

당첨번호	2등 번호	3등 번호	
10 34 38 40 42 43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190,922,709	9
2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52,164,827	63
3	5개 숫자 일치	1,609,395	2,042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4,765
5	3개 숫자 일치	5,000	1,755,036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하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래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코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